

원불교 교리에 나타난 인간중심상담 원리

김도연* · 성승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원불교 상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구하고 이론적 체계와 방법을 정립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원불교 교리에 나타난 인간관, 심리적 문제원인, 심리적 문제 해결방법을 인간중심상담 원리를 바탕으로 탐색하고 인간중심상담을 원불교 상담에 적용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인간관에서 인간중심상담은 인간이 자아실현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원불교는 인간의 본성을 법신불로 보았다. 심리적 문제 원인에서 인간중심상담은 자기개념과 유기체적 경험의 불일치로 보았고, 원불교는 경계를 따라 일어난 마음이 존중받지 못해서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심리적 문제 해결방법에서 인간중심상담은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인 진실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를 제시했고, 원불교는 이 세 가지 태도가 소태산의 대자대비한 태도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경계를 따라 있어진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으로써 로저스의 세 가지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주산이 기록한 『법설수필집 I·II』의 상담사례에서도 인간중심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가 녹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간중심상담의 목표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면 원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한 원불교 상담의 목표는 ‘자력으로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자력으로 마음공부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사회를 유지하고 성장 발전시켜 낙원세계를 건설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

주제어 : 원불교 교리, 인간중심상담, 상담목표, 상담사례, 상담자 태도, 원불교 상담

* 제1저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 수료 potatobook@hanmail.net

** 교신저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madisonair@naver.com

I. 서론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박중빈¹⁾(少太山 朴重彬, 이하 소태산)은 개교표어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²⁾를 내놓았다. 정신개벽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공부가 매우 중요하다. 소태산은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본 일각도 끊임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³⁾이 된다고 했다.

원불교에서는 “1977년부터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원불교 수계농원에서 촉발된 이 마음공부는 대내외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제법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⁴⁾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진행되고 있으며 “정전마음공부(혹은 ‘경계 중심 마음공부’), 자성을 세우는 마음공부(혹은 ‘자성 중심 마음공부’), 삼동원 마음공부, 덕목 중심 마음공부”⁵⁾ 등 마음공부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한내창은 원불교에서 운영되는 “마음공부의 본질은 경계에 반응하는 마음을 성품에 대조하여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것”⁶⁾이라고 했다. 이기홍은 “원불교식 마음공부는 대조, 반조, 돌리기 그리고 쌍수 내지 병진공부 등을, 인생항해를 위한 용심법 및 마음공부법으로 제시”⁷⁾한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원상에 내재해 있는 동태성의 원리를 대원리로 제시”⁸⁾하면서 “대상지향적인 마음을 메타마인드로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회

1) 원불교 교조. 아명은 처화(處化)·진섭(鎭燮). 족보명은 희섭(喜燮). 중빈은 법명. 법호는 소태산(少太山). 원불교 교단의 존호는 대종사(大宗師)·원각성존(圓覺聖尊)으로 받든다. 1891년 5월 5일(음 3.27),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영촌마을의 평범한 농가에서 부친 회경과 모친 유정천의 4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진리에 뜻을 두고 오랜 구도 고행 끝에 1916년 4월 28일 일원상진리를 대각하고 원불교를 창립했다. 원불교에서는 이날을 대각개교절로 정하고 경축하며, 이 해를 원기(圓紀) 원년으로 헤아린다. 소태산은 최초법어를 설하고 시국을 살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대종경》 서품4)는 표어를 지도강령으로 삼았다. 구인 제자를 얻고 저축조합과 방언공사를 시행하며 법인기도를 행한 다음, 1919년(원기4) 주석처를 전북 부안으로 옮겨 교리강령을 제정하고 교서를 초안하며 회상창립을 위한 인연 규합에 힘썼다. 1924년(원기9) 6월 1일 전북 익산의 보광사에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에 익산시 신흥동 344-2번지에 중앙총부를 건설하여 전무출신 공동생활을 시작한다. 이어 소태산은 28년간 각종 제도확립·인재육성·교서편정·교화훈련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1943년(원기28) 5월 16일 생사법문(生死法門)을 설하고, 6월 1일 열반했다(원불교 대사전 (<https://www.won.or.kr/>) 참조).

2) 원불교정화사, 『원불교전서』(익산: 원불교출판사, 2002), 1쪽.

3) 위의 책, 315쪽.

4) 한내창, 「원불교 ‘마음공부’ 정의의 한 시도」,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29집(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05), 152쪽.

5) 이기홍, 「원불교 마음공부의 확장적 논의를 위한 한 개념들」,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72집(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186쪽.

6) 한내창, 앞의 책, 177쪽.

7) 이기홍, 앞의 책, 219쪽.

8) 위의 책, 222쪽.

광반조해 보고, 입장을 바꿔보는 등 다양한 돌리기 기법들”⁹⁾을 마음공부 방법으로 소개했다.

이처럼 다양한 마음공부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도 교단에서는 원불교 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임진은은 “주임교무¹⁰⁾와 부직자¹¹⁾ 간의 관계 문제, 교무와 교도¹²⁾들의 의사소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다.”¹³⁾면서 원불교 상담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출가 교무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라고 했다. 교무들이 소진되는 삶을 살면서 현장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이를 해결할 여유가 없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¹⁴⁾ 정조련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자 상담을 찾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다면서 이웃 종교는 20~30년 전부터 상담 활동을 시작했는데 원불교는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¹⁵⁾고 했다. 양명일은 “청소년 교화는 상담이 같이 가야 하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¹⁶⁾라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5월 1일 발표한 ‘2019년 청소년 통계’를 살펴보면 중고생 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 등 우울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11년째 자살이었으며, 10명 중 1명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답했다.¹⁷⁾ 이는 청소년 교화에서 상담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준다.

마음공부는 자력을 위주로 할 수 있지만 마음이 병들어 타력이 필요할 때는 마음공부를 자력으로 하기 힘들어진다. 현장에서 주임교무와 부직자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신이 소진된 교무들이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마음이 병든 일반교도와 청소년들에게도 전문가의 도움인 타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원불교 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담은 인간을 이해하며 그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일이다. 황도묵은 “원불교의 신앙

9) 같은 책.

10) 원불교 ‘교무’ 직급의 하나이다. 교무는 원불교 성직자로 교화·교육·자선 등 원불교 교단의 각종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호칭이다. 교무의 직급은 교감·주임교무·보좌교무·부교무로 나누는데 교감·주임교무는 교당의 상위 직급에 해당한다. 주로 교감은 교구장이나 지구장을 겸직하며, 그 외 교당은 주임교무가 최고 직급이다.

11) 부직자는 보좌교무·부교무를 말하며 상위 직급 교무를 보좌한다.

12) 원불교의 입교 절차에 의하여 신자가 된 사람이다.

13) 〈원불교 상담연구회 10년,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①〉, 《한울안 신문》, 946호, 2015년 6월 3일자.

14) 〈원불교 상담연구회 10년,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②〉, 《한울안 신문》, 947호, 2015년 6월 18일자.

15) 위의 책.

16) 같은 책.

17) 〈심한 우울감에 빠진 중고생... 사이버 세상에 매몰된 20대〉, 《서울 신문》, 2016년 5월 2일자.

과 수행이 한 마디로 마음공부라고 볼 때 상담은 교법 현실 구현의 한 방법¹⁸⁾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원불교 상담은 원불교 교리 원리에 근거를 두고 이론과 방법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원불교 상담학회는 2016년 10월 원불교 상담연구회 10주년 기념으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2007년 3월에 창립한 원불교 상담연구회가 10년 만에 원불교 상담학회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임전옥이 지적했듯이 “원불교 내에서 상담 분야의 발전은 아직 초보적”¹⁹⁾이다.

그렇기에 원불교 상담에 대한 논의를 확장 시키는 한 방법으로써 원불교 교리에 나타난 인간중심상담 원리와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칼 로저스(Carl Rogers, 이하 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이 주장하는 인간관, 심리적 문제 원인, 심리적 문제 해결방법 등에서 원불교 교리와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중심상담은 1940년 로저스에 의해 창시된 상담이론이다. 로저스는 당시 진단적이고 해석적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과 반대되는 내담자 중심의 비지시적 상담 원리를 제시했다. 내담자가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와 상담자의 태도를 매우 중시했다.²⁰⁾ 이러한 로저스의 경험과 철학에 근거한 인간중심상담의 “핵심사상과 기제는 이론을 뛰어넘어 범 이론적인 상담자의 기본적인 태도로 자리매김”²¹⁾하고 있다. 특히 로저스가 제시한 진실성(일치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라는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는 다른 상담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상담자들까지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상담자의 자질은 소태산의 교화사례(주산중사의 수필법문 중)를 통해서도 그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원불교 교리에 나타난 인간관, 심리적 문제 원인, 심리적 문제 해결방법을 인간중심상담 원리를 바탕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그런 후에 주산 송도성²²⁾

18) 〈상담...‘마음공부’에 날개달다〉, 《원불교 신문》, 1374호, 2007년 4월 6일자.

19) 임전옥, 「상담자로서의 소태산 대종사」,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69집(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16), 148쪽.

20) 주은선·이성미, 「인간중심 상담과 여성장애인 동료상담의 적용가능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7호(대전: 한국콘텐츠학회, 2019), 25쪽.

21) 성승연, 「인간중심치료에 대한 대승불교적 이해 : 고통의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동서정신과학』 제14권 제1호(대구: 한국동서정신과학회, 2011), 2쪽.

22) 송도성은 1907년 12월 23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동에서 2남 1녀 중 차남으로 출생했다. 본명은 도열(道悅). 호는 직양(直養). 법호는 주산(主山). 법훈은 종사. 정산중사의 동생이다. 송도성은 13세에 소태산을 처음 뵈고, 법문을 들은 자리에서 곧 제자되기를 청했다. 이를 기특히 여긴 소태산이 ‘네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났느냐’고 묻자 송도성은 ‘마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넓고 큰 것이니 정신을 수련하여 지극히 큰마음을 확충하는 것입니다’고 대답했다. 이어 소태산이 ‘네가 도의 성품을 알았구나. 앞으로 도성(道性)이라 이름하거라’ 하며 법명을 지어주었다. 송도성은 1922년(원기 7) 16세 때 부안

(主山 宋道性, 이하 주산)이 소태산의 법설을 직접 듣고 기록한 『법설수필집 I·II』에서 인간중심상담 접근과 관련된 상담사례를 찾아 제시할 것이다. 물론 『법설수필집』의 상담사례는 일반적인 상담 장면과는 다르지만 인간중심상담 이론을 원불교 상담 장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원불교 교리에 나타난 인간중심상담 원리를 탐색하는 시도는 원불교 상담의 이해 및 논의를 하는데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원불교 상담의 이론과 방법을 정립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II. 원불교 교리에 나타난 인간중심상담 원리

1. 인간관

인간중심상담은 “인간 본성이 긍정적이고 신뢰할만하다는 기본 믿음”²³⁾을 가진 로저스의 인간관을 기본으로 한다. 로저스는 인간을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존재로 봤다. 인간에게는 “자신을 유지하고 잠재력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성취하려는 기본적인면서 선천적인 성향”²⁴⁾인 실현경향성(actualizing tendency)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이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과정”²⁵⁾이다. 자기실현경향성은 유기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동기이다. 로저스는 “실현 성향은 물론 방해받고 뒤틀릴 수는 있지만 유기체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는 파괴될 수가 없다.”²⁶⁾라고 했다.

변산에 주석하며 교법을 초안하던 소태산에게 “마음은 스승님께 바치고 몸은 이 세계에 바쳐서 일원의 법륜을 힘껏 굴러 영겁토록 쉬지 않게 하리라.”는 출가시를 바치고 전무출신했다. 석두암에서 여섯 동지와 더불어 소태산을 모시고 낮에는 산전을 개척하여 생활의 근거를 삼고 밤이 되면 법석에 참석하여 법을 듣고 즐겁게 살았다. 법설 내용은 대개 관심입정과 건성성불하는 방법을 설했는데 송도성은 이 법설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1924년(원기9)에는 이리 보광사에서 개최된 ‘불법연구회’ 창립 총회에 참석한 후, 익산총부 건설에 혈성을 다했다. 1945년(원기30) 8월 15일 광복을 맞아 전제민 구호사업회를 발기해 서울·익산·전주·부산 등지에서 일본·만주·중국 등 해외에서 귀환하는 전제동포구호사업을 전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했다. 교단의 지도자였던 송도성은 전제동포구호사업에 몰두하던 중 이재민의 전염병 발진티푸스에 감염된 채, 교단의 중대 현안을 의논하기 위해 총부에 내려오다 건강이 악화된 후, 1946년(원기31) 3월 27일 40세를 일기로 소태산의 계승을 암송하면서 열반했다(원불교 대사전(<https://www.won.or.kr/>)) 참고.

23) 브라이언 손, *Carl Rogers*, Sage Publications: London, 박외숙 외 역, 『인간중심치료의 창시자 칼 로저스』(서울: 학지사, 2007), 197쪽.

24) 위의 책, 79쪽.

25) 칼 로저스, *A Way of Being*, 오제는 역, 『사람-중심상담』(서울: 학지사, 2007), 133쪽.

26) 위의 책, 134쪽.

로저스는 자기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나(I)’/‘나를(me)’이라는 특성에 대한 지각, 타인들과 ‘나’/‘나를’과의 관계에 대한 지각, 인생의 다양한 측면과 ‘나’/‘나를’과의 관계에 대한 지각으로 구성된 개념적 형태²⁷⁾라고 했다. 자기를 실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자기개념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태도와 생각을 형성한다. 유기체는 가치를 고정하거나 경직시키지 않고 유기체적 가치화를 계속하면서 새롭게 가치를 부여받는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을 계속한다.

원불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이미 그 자체가 원만구족하게 갖추어져 있는 법신불로 본다. 「정전」 일상수행의 요법²⁸⁾ 1·2·3조에서 소태산은 “심지는 원래 요란함·어리석음·그름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어리석음·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정·혜·계를 세우자.”²⁹⁾라고 했다. 여기서 “심지(心地)라는 말은 마음의 바탕, 즉 마음이 생기기 이전의 마음 자리를 말한다.”³⁰⁾ 안이정은 심지, 진리 자리, 자성, 각자의 본성이 말의 표현만을 달리했을 뿐 각각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를 알리기 위한 표현이라고 했다.³¹⁾ 그러면서 “이 자리는 아직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진리의 바탕이 되는 진공(眞空)한 체성이기 때문에 원래 텅 빈 가운데 원만구족하게 다 갖추어 있어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어서 그 자체 원만구족하게 갖추어진 진리의 바탕”³²⁾이라고 했다. 한정석은 심지가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다는 것은 본래의 마음이 절대 선(善)하다는 것이다. 이를 복성(復性)사상이라 한다. (...) 성품이 완전하므로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다.”³³⁾라고 했다. 우리의 본성은 이미 그 자체로 원만구족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우리의 성품은 본래 완전하다는

27) 브라이언 손, 앞의 책, 84쪽.

28) 원불교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해 가는 지침으로 삼도록 한 9개의 요목이다. 교강 9조(敎綱九條)라고도 한다. 일상수행의 요법은 《정전》 수행편의 맨 앞에 위치하여, 원불교 교리의 전반을 수행화(修行化)하도록 9개 조항으로 간추렸다. 9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우자. ②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혜를 세우자. ③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계를 세우자. ④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써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⑤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⑥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⑦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⑧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⑨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원불교 대사전(<https://www.won.or.kr/>) 참고).

29)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54쪽.

30) 안이정, 『원불교 교전해의』(익산: 원불교출판사, 1997), 340~341쪽.

31) 위의 책, 341쪽.

32) 같은 책.

33) 한정석, 『원불교 정전해의』(서울: 동아시아, 1999), 319쪽.

것을 알 수 있다.

원불교 교리의 핵심을 도식으로 표현한 교리도에서도 소태산의 인간관을 찾아볼 수 있다. 소태산은 1943년 1월에 새로 정한 ‘교리도(敎理圖)’를 직접 발표하면서 “내 교법의 진수가 모두 여기에 들어 있다”³⁴⁾라고 했다. 소태산은 궁극적 진리를 일원상(○)으로 명명하고 “일원(一圓)은 법신불(法身佛)이니 우주 만유(宇宙 萬有)의 본원(本源)이요 제불 제성(諸佛 諸聖)의 심인(心印)이요 일체 중생(一切 衆生)의 본성(本性)”³⁵⁾이라고 했다. 우주만유의 본원이 법신불이며, 동시에 제불제성과 일체중생의 본성이 곧 법신불임을 선언한 것이다. 즉 인간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진리 그 자체로서의 부처인 법신불과 같다는 것이다. 소태산은 인간이 자신의 성품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무한한 믿음을 일원 중지(宗旨)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중심상담은 인간 본성이 긍정적이고 선하며 누구나 자아실현을 향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내재적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불교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우리의 본성은 이미 그 자체로 원만구족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본래 완전한 법신불이기에 누구나 자신의 성품을 깨달으면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

2. 심리적 문제 원인

인간중심상담에서는 인간에게 심리적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자기개념과 유기체적 경험의 불일치”³⁶⁾라고 본다.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자기실현을 방해받는 환경에 놓이기도 한다. 평가적이고 판단적인 조건적 존중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왜곡된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인간은 부모나 중요한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존중받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어떤 행동이 존중받을 수 있고 어떤 행동이 존중받지 못하는지를 분별하는 가치존중체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부여된 가치에 부합될 때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자기개념과 유기체적 경험이 불일치하면 개인은 이를 위협으로 느낀다.³⁷⁾ 이러한 위협이 반복되면 인간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되려고 한다.

34)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402~403쪽.

35) 위의 책, 13쪽.

36) 성승연, 앞의 책, 3쪽.

37) 같은 책.

예를 들면 남자아이가 울 때마다 남자는 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거나 남자는 용감해야 한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자랐다고 하자. 남자는 울거나 무서움을 느낄 때마다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남자는 ‘나는 남자니까 절대 울지 않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남자인데 우니까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게 된다. ‘나는 남자니까 어두운 곳에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은 사람이야.’ 혹은 ‘나는 남자인데 용감하지 않으니까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게 된다. 먼스와 손(Mearns&Thorne)은 이러한 결론이 자기 파괴적이라고 했다. 남자는 절대 울지 말아야 한거나 무서움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암시는 의식에서 억압되고, 울거나 용감하지 않아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암시는 자책과 죄책감의 원인이 된다는 것³⁸⁾이다.

인간은 왜곡된 자기개념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고 한다. 자기실현을 하고자 하는 유기체의 욕구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부여한 가치 조건대로 행동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개인에게 불안을 일으키고 심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자기를 주장하면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개인은 점차 다른 사람이 부여한 가치에 충실해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다. 개인은 자신의 유기체적 욕구를 억압하면서 점차 자기가 사라진다. 자기가 사라지면 마음에 병이 생긴다. 이러한 가치조건화는 타고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게 만든다. 자신의 경험이 부정될수록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하기 어려워지며 심리적 문제와 부적응을 겪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과정은 원불교의 경계를 인식하는 방식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계는 “사람이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 사건, 사물”³⁹⁾을 말한다. “마음 내외의 자극, 조건, 상황, 환경, 시간 등 모두가 경계가 될 수 있다.”⁴⁰⁾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어리석음·그림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고 했다. 우리의 자성 즉 요란함·어리석음·그림이 없는 마음자리에서 경계를 접하니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있어지나니’이다.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나 경계를 대함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욕심을 내기도 하고, 탐심을 내기도 하고, 진심을 내기도

38) 데이브 먼스·브라이언 손, *Person-Centred Counselling In Action*, 주은선 역, 『인간중심 상담의 임상적 적용』(서울: 학지사, 2012), 40쪽.

39) 한내창, 앞의 책, 171쪽.

40) 이기홍, 앞의 책, 198쪽.

하고, 치심을 내기”⁴¹⁾도 한다.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경지에서 마음이 발한다는 것이 아니다.”⁴²⁾ 경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느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장진영은 원래 마음에 어떤 경계가 자극으로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생각, 감정이 반응으로 일어난다고 했다. 경계라는 조건이 가해짐으로써 이전의 경험과 인식에 의해 훈습됐던 잠재세력이 발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적 원인과 외적 조건의 만남이 마음을 작용하는 것으로 지어놓은 습관과 업력에 의해 자동적으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 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⁴³⁾이다. 한내창은 “경계의 어떤 속성들을 마음이 주목하고 인식하여 마음의 틀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왜곡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⁴⁴⁾라고 했다. 이전 경험과 인식에 의해 훈습됐던 감정이 경계로 인해 발동하거나 선택적으로 왜곡되기 때문에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심리적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일어난 마음은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라고 한 것처럼 경계로 인해 자연히 있어진 것이기 때문에 있어진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있어진 마음을 존중받는 과정에서 경험에 의해 훈습됐던 감정과 마음의 틀로 인해 왜곡됐던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내적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경계를 따라 있어진 마음을 부정당하고 외면당하면 그것이 또 다른 경계가 되어 고통받을 수 있다. 경계를 따라 있어진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낼 때마다 무시당하거나 묵살당하면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 자기가 비합리적이거나 이상하거나 잘못된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되기도 한다. 경계를 따라 있어진 마음을 존중받지 못하는 고통은 경험과 인식에 의해 훈습됐던 감정들과 내적 원인을 강화시켜 경계를 접할 때마다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중심상담에서 평가적이고 판단적인 조건적 존중으로 인해 자기개념과 유기체적 경험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심리적 문제로 확장된다고 본 것과 유사하다.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를 존중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인간중심상담이 말하는 심리적 문제 원인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41) 안이정, 앞의 책, 344~345쪽.

42) 한정석, 앞의 책, 323쪽.

43) 장진영, 「마음병의 세 가지 유형 - 무지, 욕심, 습관 -」,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64집(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15), 83쪽.

44) 한내창, 앞의 책, 173쪽.

3. 심리적 문제 해결방법

인간중심상담자는 “관계를 치료의 주된 매체”⁴⁵⁾로 사용한다. 상담기법이 아닌 상담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치료조건인 공감,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일치성을 모두 높은 수준으로 제공”⁴⁶⁾한다.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는 치료적 변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⁴⁷⁾이다.

진실성(genuineness)은 치료자가 순간마다 마음속에서 흐르는 감정들과 태도들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상담자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수록 내담자는 건설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성장한다.⁴⁸⁾ 상담자의 진실성은 치료적 관계의 신비성을 제거한다. 상담자가 숨기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담자가 경험할 때 내담자는 안전하게 자신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 로저스는 “치료적 관계에서 치료자의 진실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⁴⁹⁾라고 믿었다. 로저스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만드는 진실성을 일치성(congruence)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unconditional positive regard)은 가치 조건화된 행동을 해제한다. 상담자가 조건적으로 내담자를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담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수용된다는 경험을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내담자는 방어하고 억압했던 자신을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상담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개방하기 시작한다. 상담자에 대한 신뢰는 내담자가 깊은 탐색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가치 조건화된 행동을 스스로 바로잡도록 도와준다. “상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담자 자신의 자기결정, 자기선택을 이해하고 존중”⁵⁰⁾한다. 로저스는 내담자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든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치료적 발달과 변화가 더욱 잘 일어난다고 했다. 내담자가 혼란, 적의, 두려움, 분노, 용기, 사랑, 자부심 등 그 어떤 감정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기꺼이 허용해야 하며 조건적으로 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⁵¹⁾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은 공감처럼 내담자가 깊은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5) 윤호균, 「정신분석, 인간중심의 상담 및 불교의 비교 II : 심리적 문제의 해결」, 『한국심리학회지』 제 3권 제1호(서울: 한국심리학회, 1982), 211쪽.

46) 데이브 먼스·브라이언 손, 앞의 책, 121쪽.

47) 윤호균-Ⅱ, 앞의 책, 211쪽.

48) 데이브 먼스·브라이언 손, 앞의 책, 131쪽.

49) 위의 책, 217쪽.

50) 윤호균-Ⅱ, 앞의 책, 204쪽.

51) 데이브 먼스·브라이언 손, 앞의 책, 131~132쪽.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는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과 개인적인 중요한 의미들을 치료자가 정확히 감지하고, 또 그렇게 이해한 것을 내담자에게 전달해주는 것을 의미한다.⁵²⁾ 공감은 내담자에게 깊은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감정, 생각, 행동 등을 공감적으로 이해해주는 것을 느낄 때 자신이 비합리적이거나 이상하거나 잘못된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공감은 내담자를 가치 조건화에서 해방시켜 준다. 자기개념과 유기체적 욕구가 일치하면서 자기실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간중심상담은 인간을 자아실현적이며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존재로 본다. 이를 믿고 인간중심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실현경향성을 진행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준다.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인 진실성(일치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를 제공받으면 내담자는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길과 해결책을 찾아간다.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나아간다. 인간은 “자신은 물론 사회의 유지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이고 창조적이며 성장지향적인 잠재력들”⁵³⁾이다.

원불교 교리에서도 인간중심상담의 치료조건인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 즉 진실성(일치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를 찾아볼 수 있다. 「대중경」 실시품 47장에서 김광선은 소태산에게 배우고 싶은 세 가지를 순일 무사하신 공심, 시종일관 하신 성의, 청탁 병용(淸濁並容)하신 포용⁵⁴⁾이라고 했다. 이러한 소태산의 대자대비한 태도는 로저스가 제시한 진실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라는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김성천은 소태산이 수용, 비심판, 이해, 지지 등을 사용하여 상담을 진행했다⁵⁵⁾고 했다. 임전옥은 “소태산의 관심과 이해, 수용과 지지 속에서 내담자들은 안정을 얻고,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 나갔다.”⁵⁶⁾라고 하면서 “소태산의 태도는 내담자들의 성장을 위한 좋은 환경이 되어주었다.”⁵⁷⁾라고 했다. 이는 소태산이 상담에서 기본적으로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를 제공했음을 말해준다.

52) 칼 로저스, 앞의 책, 132쪽.

53) 윤호균, 「정신분석, 인간중심의 상담 및 불교의 비교 I : 인간 및 심리적 문제에 관한 견해」, 『한국심리학회지』 제3권 제1호(서울: 한국심리학회, 1982), 197쪽.

54)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344~345쪽.

55) 김성천, 「소태산 대중사의 상담원리에 대한 서설적 연구」,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10·11집(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1987), 555쪽.

56) 임전옥, 앞의 책, 159~160쪽.

57) 위의 책, 160쪽.

소태산은 누구나 자신의 성품을 깨달으면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이든 그 존재만으로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수용했다. 「대종경」 실시품 7장에 창부의 이야기가 나온다. 창부 몇 사람이 원불교에 입교하고 법회에 참석하자 대중들은 소태산에게 창부들이 오지 못하게 하자고 요청한다. 창부들이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법당에 오고 가는 걸 외부 사람들이 보면 빈정거리며 웃을 것이고, 원불교 발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염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태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중에게 인간의 불성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다.⁵⁸⁾ 창부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한 것이다.

소태산은 제자들에게 ‘경외심’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존중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경외심은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로저스가 사용한 “존귀하게 여기는 것(prizing)”⁵⁹⁾이라는 단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대종경」 교의품 4장에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모두 부처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듯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 그 당처에 직접 불공하라⁶⁰⁾고 말하고 있다. 「대종경」 인도품 33장에는 경외심을 놓지 말고 사람이나 물건을 대할 때 언제 어디서든 오직 공경하고 두려워 하는 마음을 가지라⁶¹⁾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모두 극치의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로저스는 세 가지 핵심 조건들 중에서 공감이가장 훈련이 가능한 것임을 종종 암시⁶²⁾했다. 소태산도 제자들에게 공감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대종경」 교단품 4장에서 소태산은 인간의 특성이 저마다 다르기에 각자의 성질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정했던 사이도 부딪치고 맞서 싸우게 된다고 했다. 내가 아는 바로 써 상대방의 아는 바를 부인하거나 무시하고 심지어 미운 마음까지 생겨나는 건 상대방의 특성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⁶³⁾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지각, 정서, 사고, 행동, 태도 등에 대한 고유한 참조틀을 가지고 있다. 상대의 감정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내적 세계인 내적 참조틀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 즉 상대방을 자신의 내적 참조틀이 아니라 상대방의 내적 참조틀로 이해하고 공감해야만 서로가 편이 돼주고 덕이 화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58)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328~329쪽.

59) 데이브 먼스·브라이언 손, 앞의 책, 179쪽.

60)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113쪽.

61) 위의 책, 201~202쪽.

62) 브라이언 손, 앞의 책, 102쪽.

63)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349~350쪽.

공감을 하기 위해선 경청도 중요하다. 로저스는 특별한 경청이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힘들 중 하나⁶⁴⁾라고 했다. 소태산의 상담은 질문과 경청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소태산이 질문하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답을 하고 소태산은 적극적으로 경청했다. 주산은 “회중(會中)은 (...) 각자의 의견을 사뢰되 종사주 일일이 청취하옵고”⁶⁵⁾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일이 청취했다는 기록에서 소태산이 적극적 경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주산이 소태산의 법설을 기록한 문집엔 소태산이 질문하고 경청하는 장면을 담은 법문이 다수 수록돼 있다. 소태산은 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내담자에게 자신의 내면세계를 더 깊이 탐색하고 자기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원불교 교리 안에 인간중심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음공부를 자력으로 하기 힘든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수행의 요법에 나온 ‘경계를 따라 있어진’ 마음을 원불교 상담이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원불교 교리가 포함하고 있는 인간중심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를 타력으로 제공받아 ‘있어진’ 마음을 회복하면 자력으로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행복 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⁶⁶⁾ 할 수 있는 성장 지향적인 존재다.

III. 소태산의 인간중심 접근적 상담사례

본고에서는 주산이 수필(受筆)한 소태산의 법문 중 『법설수필집 I·II』를 중심으로 상담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수필법문이 소태산의 제자에 의해 남겨졌지만 그 중 주산이 수필한 법문이 “법문의 요지를 비교적 잘 정리한 형태”⁶⁷⁾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주산은 소태산을 최측근에서 시봉하면서 “원불교 초기에 설한 소태산의 직설적이고 풍부한 삶의 예가 담긴 귀중한 법문들을 기록”⁶⁸⁾했다. 「대종경」에도 주산이

64) 칼 로저스, 앞의 책, 132쪽.

65) 주산종사추모사업회편, 『마음은 스승님께 몸은 세상에』(익산: 원불교출판사, 2007), 71쪽.

66)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21쪽.

67) 양은용, 「주산종사의 소태산 대종사 수필법문과 그 교의사적 의의」, 『원불교학』 4집(익산: 한국원불교학회, 1999), 227쪽.

68) 박광수, 「대종경 법문의 상황성 연구 - 주산종사의 대종사법설 수필집 중심으로 -」, 『원불교학』 3집

수필한 법문이 다수 수록돼 있다. “『법설수필집』은 1929년 이전의 정리형태를 띠며, 1931년에 추가법문까지의 정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는 55편이 수록되어 있다.”⁶⁹⁾ 비록 일부이고 일반적인 상담 장면과는 다르지만 『법설수필집』에 담긴 소태산의 상담사례에서 소태산이 대중들과 문답한 내용을 통해 어떠한 태도로 상담을 진행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태산의 상담사례에서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를 분리해서 뽑아내기는 어렵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사실 본질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하나의 조건”⁷⁰⁾이며, “내담자와 함께 있는 과정”⁷¹⁾이기 때문이다.

〈사례 1〉 김기천이 선생님께 고하되, “현금(現今) 세상에 여러 사람이 사방에서 활동하며 스스로 선생이라 일컬었고, 각각 당군(黨群)을 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으로써 선생이라 할 가치가 없는 줄로 소자는 생각하오니, 복원(伏願) 선생님이시여, 그네들을 참 선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선생: “참 선생이나라.” 기천: “어찌함으로 참 선생이라 하십니까?” 선생: “그대는 어찌 참 선생이 아님을 아느냐?” 기천: “그네가 예 아닌 행동이 많음으로 아옵나이다.” 선생: “그대가 그네를 인하여 그네의 그릇을 알았으니, 어찌 참 선생이 아니랴.” 기천: “그네들이 지금은 예 아닌 일로써 선생이 되니, 어느 때면 예에 당한 선생이 되겠습니까?” 선생: “지금은 예를 모르는 선생이 되었으나, 사면에서 예 아닌 선생이 많이 나면 그네들도 자연히 예 아는 선생이 되나니라.” 기천: “그 선생의 밑에 출입하는 학도는 어느 때나 참 정신을 얻어서 배우는 향방을 알겠습니까?” 선생: “그 선생에게 많이 배운 뒤에 아나니라. (...) 능히 감당하지 못 하나니라.” 하시더라.⁷²⁾

소태산은 김기천의 계속된 질문에 매우 관대하고 긍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로 김기천이 이해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다. 답변을 해주는 가운데서도 소태산은 김기천의 생각을 되묻고 있다. 이렇게 되묻는 질문은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가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김기천은 소태산이 자신의 질문을 수용해주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자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묻고 또 묻는다. 소태산의 수용적인 태도는 제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문할 수 있는 신뢰 관계를 형

(익산: 한국원불교학회, 1998), 94쪽.

69) 양은용, 앞의 책, 255쪽.

70) 데이브 먼스·브라이언 손, 앞의 책, 266쪽.

71) 위의 책, 130쪽.

72) 주산종사추모사업회편, 앞의 책, 126~127쪽.

성해준다. 제자들은 두터운 신뢰 관계 속에서 소태산에게 두려움 없이 질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기천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해주는 부분은 문장이 길어 생략했다.

〈사례 2〉 선생님께서 조송광에게 말씀하시되, “들은 즉 예수교의 주지는 하느님을 공경한다 하니, 참 그러하느냐?” 송광: “그렇습니다.” 선생: “송광도 수십년을 예수교에 신앙하였으니 하느님을 알았느냐. 알지도 못하고 공경하고 신앙하는 것은 너무나 허망한 일이 아니냐?” 송광: “전일에는 하느님이 먼 곳에 계시는 줄로 알았사오며, 무엇이 하느님인지도 몰랐삽더니, 이제는 하느님을 가깝게 모셨사온 줄 생각하오니, 다시 말씀하오면 자심이 천주이옵나이다.” 선생: “군의 말이 옳도다. 그러나 이미 자심의 천주는 알았거든 모셔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모신 효력이 있어야 할 것이니, 모신 효력이 있기로 말하면 밖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었다가 안으로 자심 천심에게 부탁하여 일일시시로 가르치라 하고, 그 가르침을 복종하되 부당한 일과 당연한 일, 양방 사이에 저의 발원대로 가르쳐 주나니, 아무쪼록 마땅한 대로 배우고 보면 그 결과는 배워 행한 뒤에 나타나니라.” 하시더라.⁷³⁾

소태산은 조송광이 예수교를 신앙하고 있는 것을 존중해주면서 예수교 신앙이 더욱 깊어지도록 지지해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태산이 조송광에게 원불교로 개종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변화를 하느냐 아니면 현 상태에 머무느냐, 그리고 변화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 등은 내담자가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⁷⁴⁾이다. 이러한 소태산의 태도는 오히려 예수교를 신앙하던 조송광으로 하여금 원불교에 입교하여 소태산의 제자가 되도록 만든다. 여기서 ‘군의 말이 옳도다.’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으로 볼 때 소태산이 조송광의 말에 공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례 3〉 (….) 선생님께서 문득 등잔불을 가리키시며, “저 등축의 광명이 저렇게 밝은 데 어찌 하여 바로 저의 밑은 어둡느냐?”고 좌우 제자들에게 물으시었다. 김남천이 대왈 “이 말씀을 실로 소자에게 비함인가 하옵나이다. 소자는 직접 선생님의 문하에 시봉한 지가 벌써 몇 해가 되었으며, 모든 일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도리어 원방(遠方)에서 간혹으로 내왕하여 뵈옵는 여러분만 못 하옵나이다.” 선생님

73) 위의 책, 131~132쪽.

74) 윤호균-Ⅱ, 앞의 책, 204쪽.

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웃으시며 다음에 송규에게 물으신대, 송규 대왈, “저 등불은 위로 발하여 먼 데를 밝히며 등잔기둥은 가운데에 있어서 아래를 덮음으로 저의 밑이 어둡나이다. (…)” 선생: “그러면 그와 같이 원만치 못한 사람이 자타가 없이 밝아지기로 하면 어찌하여야 되겠느냐?” 송규: “희로애락에 편벽되게 착하지 말며, 마음 가운데 모든 상을 끊어 없애면 그 아는 것이 자타가 없겠나이다.” 선생님께서 이춘풍을 보시며, “춘풍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시니, 춘풍: “저도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 등잔은 제 몸에 가려서 제 앞이 어둡고 춘풍은 아상에 걸려서 춘풍의 앞이 밝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하니, 선생님께서 그 두 사람의 말에 허여(許與)하시는 뜻을 보이시더라.⁷⁵⁾

소태산은 자신의 질문에 제자들이 답변할 때마다 웃음으로써 수용하고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만든다. 소태산은 질문을 통해 제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⁷⁶⁾, 제자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동안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보거나 이전과는 다른 각도로 생각”⁷⁷⁾하게 된다. 소태산의 질문과 경청은 제자들과의 신뢰를 더욱 깊어지게 만들며 깊이 있는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질문은 공감을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소태산은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중도에 끊지 않고 말을 마칠 때까지 일일이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태산의 질문과 경청은 제자들로 하여금 공감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만든다.

〈사례 4〉 (….) 때에 송적벽이 참여하여 들었더니, 그 사람이 물러간 뒤에 선생님께 고하되, “선생님의 말씀에 소자가 대단히 의심나는 바가 있습니다.” 선생: “무엇이 그렇게 의심나는 바이냐?” 적벽: “아까 선생님께서 그 승려를 대하여 말씀하시는 가운데 모든 재주를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하시고, 모든 물품도 없는 것이 없사와 사람의 구하는 바를 따라서 응하여 주신다 하시오니, 감히 묻나이다. 어떠한 무례한 요구라도 다 능히 수응(酬應)하여 주시겠습니까?” 선생: “그대가 의심나거든 그대가 나에게 시험하여 물어 보라.” 적벽: 이에 물어 왈 “근세에는 비행기가 있어 공중에 헤매이니, 비행기를 제조하기로 하면 어떻게 하옵나이까?” 선생: “비행기가 있으니 반드시 비행기 제조하는 공장이 있을 것이라. 그대가 비행기 제조하는 재주

75) 주산종사추모사업회편, 앞의 책, 135~136쪽.

76) 임전옥, 앞의 책, 171쪽.

77) 같은 책.

를 배우려 할진대 그 공장에 가서 배우면 잘 가르쳐 주리라.” 적벽: 다시 고하되, “제가 서절(暑節)을 당하였는데 부채가 없사오니, 부채를 한 개 주시옵소서.” 선생: “시장에 가면 부채 장사가 있어 부채를 많이 쌓아 놓고 팔을 것이니, 그대가 부채를 사기로 할진대 부채 장수에게 가서 사면 얻으리라.” 하시니, 적벽: “비행기 제조하는 법도 선생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부채도 선생님이 친히 주시옵소서.” 선생이 적벽을 돌아보시며 가라사대, “적벽이 어찌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느냐? 그대가 곧 군청에를 가서 보라. 군내에 모든 사무를 군수 단독이 보아 가는가? 각 과에 모든 직원이 있어서 다스려 가는가? (...) 지금 이 일도 그와 같아서 무엇이나 구하는 데에 따라서 내가 직접으로 가르쳐 줄 일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서 가르쳐 줄 일도 있나니라. 그런즉 그대는 그대의 원하는 바만 얻어 가면 그만 아닌가. 무엇을 다시 말하는가?” 하시더라.⁷⁸⁾

소태산은 자신의 분야가 아닌 것에는 아는 척하며 답하지 않는 진실성과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대답을 할 때에도 신비성을 제거하고 있다. 송적벽이 묻고 또 묻는 말에는 매우 수용적이지만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자 ‘무식한 말을 하느냐?’고 되묻는다. 여기서 ‘무식한 말’이란 표현은 송적벽을 무시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다. 소태산이 할 수 없는 일을 송적벽이 해달라고 우기자 소태산에게 일어난 감정을 ‘무식한 말을 하느냐?’로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은 소태산의 진실성과 일치성을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송적벽이 이토록 거침없이 묻고 또 물으며 우길 수 있는 것은 소태산의 수용적인 면을 깊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소태산은 뒤이어 바로 송적벽의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 자상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먼스와 손(Mearns & Thorne)은 공감에 대해 사람들이 종종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친절함’을 공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친절함은 사회화된 가면으로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⁷⁹⁾고 했다. 공감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상담자의 진실하고 일치성 있는 태도를 방해한다. 로저스는 “일치성 또는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진실성이 치료적 성장을 높이는 태도 중에서 가장 기본 조건”⁸⁰⁾이라고 했다. 그만큼 상담자의 진실성과 일치성은 매우 중요하다.

78) 주산중사추모사업회편, 앞의 책, 171~172쪽.

79) 데이브 먼스·브라이언 손, 앞의 책, 207쪽.

80) 브라이언 손, 앞의 책, 99쪽.

〈사례 5〉 문정규가 선생을 뵈옵고 고하되, “향일에 제가 박호장의 집에 간즉 그날 이 마침 호장의 아들 소상(小祥)이온 바 호장이 너무 슬퍼하고 마음을 과도히 상하더이다.” 선생이 가라사대, “천륜이 지중하니, 그와 같이 슬퍼하는 것이 예사로다.” 하시니, 정규 다시 고하되, “저의 뜻에는 불가하옵더이다. 공부하는 사람이 그 같은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상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니, 어찌 미친 짓이 아니오리까?” 하거늘, 선생이 정규에게 물으시되, “그러면 그대가 그러한 경우를 당하여도 마음에 조금도 비창(悲)함이 없겠느냐?” 하시니, 정규 대왈, “저는 그러한 일에는 조금도 슬퍼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거늘, 선생 “참으로 그러하겠느냐?”고 3, 4차 물으시니 정규 3, 4차를 다짐하여 올리다. 선생: “혹 내가 불행한 일이 있으면 어쩔꼬?” 정규: “만약 선생님께서 그러한 불행이 있으면 제가 이 세상에 감내하여 살지 못하겠습니다.”하고 물러가다. 그런 후 수년을 지내매, 정규의 아들 1인이 무슨 일로써 법률에 관계되어 20여일 동안을 구류에 처하였더니, 정규 드디어 근심으로써 먹는 것이 달지 아니하며 밤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그 처소에 내왕하여 자주자주 눈물을 흘려 슬퍼하더라. 그 후에 선생님을 뵈옵고 고하되,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의 일을 보기와 제가 직접으로 당하여 보는 일이 판이함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소자가 전일에 박호장의 말로써 선생님께 망령되게 고한 것이 생각할수록 황송하옵나이다.”하고 그 말로써 고하니, 선생이 가라사대, “그대의 깨달음이 옳도다. 범상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제 앞에 당치 아니한 일은 그와 같이 쉽게 알고 쉽게 말하여 세상에 경박한 자 되나니, 그대가 이미 그 뜻을 알았거든 명심하여 두고 항상 조심하라.”하시더라.⁸¹⁾

인간중심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앞서가거나 끌고 가지 않는다. 소태산도 문정규의 근기에 맞게 상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소태산은 문정규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 관계를 조성하는 가운데 문정규가 표현하는 감정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 소태산은 문정규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소태산은 문정규의 감정을 앞서가거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타이르거나 설득하지 않는다. 마음을 심지에 대조하여 돌리라고도 하지 않는다. 소태산이 “어떤 칭찬이나 꾸지람 없이 있는 그대로”⁸²⁾ 경청하고 수용함으로써 문정규는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문정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해 박호장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됨과 동시에 통찰도

81) 주산중사추모사업회편, 앞의 책, 181~182쪽.

82) 윤호균-Ⅱ, 앞의 책, 206쪽.

하고 있다. 여기서 소태산이 ‘그대의 깨달음이 옳도다.’라고 한 말도 맥락적으로 볼 때 판단이 아니라 공감적 이해라고 볼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원불교 교리에 나타난 인간중심상담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관, 심리적 문제 원인, 심리적 문제 해결방법을 탐색한 후 『법설수필집 I·II』에서 소태산의 인간중심 접근적 상담사례를 살펴보았다.

첫째, 인간관에 있어서 인간중심상담은 인간의 본성을 자아실현경향성이 있는 내재적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보았고, 원불교는 이를 포함하여 인간의 본성이 법신불이며 자신의 성품을 깨달으면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원불교와 인간중심상담 모두 인간을 내재적 잠재력이 있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심리적 문제 원인에 있어서 인간중심상담은 자기개념과 유기체적 경험의 불일치로 심리적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다. 원불교는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중심상담처럼 경계를 따라 있어진 감정이 부정될수록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하기 어려워지며 심리적 문제와 부적응을 겪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심리적 문제 해결방법에 있어서 인간중심상담은 로저스가 제시한 진실성(일치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라는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를 치료적 변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보았다. 원불교에서도 마음공부를 자력으로 하기 힘든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를 따라 있어진 마음’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주산이 기록한 『법설수필집 I·II』에서 소태산의 인간중심 접근적 상담 사례를 살펴보았다. 소태산의 상담사례에서 로저스가 제시한 인간중심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가 녹아들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간중심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⁸³⁾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①자기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②실존적인 삶을 살고, ③유기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④자유를 체험하고, ⑤창의성을 가진 존재”⁸⁴⁾이다.

내담자는 자신의 심리적 불편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83) 브라이언 손, 앞의 책, 92쪽.

84) 성승연, 앞의 책, 8쪽.

의 관계 속에서 필요충분조건인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를 제공해준다. 내담자는 적절한 심리적 조건 속에서 무엇이 불편하고 왜 불편한지를 알게 된다. 내담자는 자신이 가치 조건화된 환경 속에서 자기개념과 유기체적 경험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내담자는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자기실현을 위한 변화를 시도한다. 다른 사람이 부여한 가치 조건화에서 벗어나 자신 속의 긍정성을 인식하고 수용하기 시작한다. 인간중심상담은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인간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준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사회를 유지하고 성장 발전시키는 데까지 나아간다.

원불교 교리에 나타난 인간중심상담 원리를 바탕으로 원불교 상담의 목표도 제시해 볼 수 있다. 원불교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자력으로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자력으로 마음공부 하는 사람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보다 더 확장되어 자기 자신은 물론 사회를 유지하고 성장 발전시켜 낙원세계를 건설⁸⁵⁾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여기서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태도는 원불교 교리와 주산이 수필(受筆)한 소태산의 법문 중 『법설수필집 I · II』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원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한 원불교 상담에서도 진실성(일치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있어지나니’를 다루어줄 수 있는 것이다. 경계를 따라 일어난 마음은 잘못된 것이 없다. 내담자가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지지를 해줘야 한다. 화났다, 짜증났다, 지쳤다, 슬프다, 우울하다, 억울하다, 속상하다 등 경계를 따라 있어진 마음을 먼저 인정해준 후 그럴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내담자가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진다. 이에 따라 주위 상황이 보여지고 상대의 심경이 이해되어지는 지혜가 나와진다.”⁸⁶⁾ 경계를 따라 일어난 마음이 잘못되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내담자는 자기를 불안하게 여기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일어난 마음 그대로 받아주는 존재를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85) 백준흠, 「원불교 마음공부에 관한 연구」,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28집(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04), 109~138쪽.

86) 서현아·한순옥, 「원불교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6집(아산: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2), 5쪽.

안정감을 느끼면 비로소 요란함·어리석음·그릇을 없게 하기 위해 자성의 정·혜·계를 세울 수 있는 자력이 생긴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떤지 묻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는 출발점이다.

소태산은 「대종경」 교의품 29장에서 원불교는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냐고 묻는다면 마음 작용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친다고 대답할 것⁸⁷⁾이라고 했다. 원불교 마음공부처럼 원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한 원불교 상담 역시 마음 작용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마음공부는 자력을 위주로 하지만 상담은 타력을 위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타력을 위주로 하는 원불교 상담은 주임교무와 부직자 간의 문제, 교무와 교도들의 의사소통 문제, 심신이 소진된 교무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마음이 병든 일반교도들과 청소년 교도들의 마음을 회복하여 ‘자력으로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원불교 교리에 나타난 인간중심상담 원리를 논의해 보았다. 원불교 상담학회가 창립됐지만 여전히 원불교 상담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본고는 원불교 상담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보려는 것이다. 본고가 앞으로 원불교 상담의 이론적 체계와 방법을 정립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아쉬운 점은 주산이 수필한 법문 중 일부만을 정리하여 제시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소태산의 상담사례를 풍부하게 찾아내고 연구하면 원불교 상담 방법 연구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 김성천, 「소태산 대종사의 상담원리에 대한 서설적 연구」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10·11집(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1987)
- 박광수, 「대종경 법문의 상황성 연구 - 주산종사의 대종사법설 수필집 중심으로 -」 『원불교학』 3집(익산: 한국원불교학회, 1998)
- 백준흠, 「원불교 마음공부에 관한 연구」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28집(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04)

87) 원불교정화사, 앞의 책, 129~130쪽.

- 〈상담...‘마음공부’에 날개달다〉, 《원불교 신문》, 1374호, 2007년 4월 6일자.
- 서현아·한순옥, 「원불교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6집(아산: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2)
- 성승연, 「인간중심치료에 대한 대승불교적 이해 : 고통의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동서정신과학』 제14권 제1호(대구: 한국동서정신과학회, 2011)
- 〈심한 우울감에 빠진 중고생... 사이버 세상에 매몰된 20대〉, 《서울 신문》, 2016년 5월 2일자.
- 안이정, 『원불교 교전해의』,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7.
- 양은용, 「주산종사의 소태산 대중사 수필법문과 그 교의사적 의의」 『원불교학』 4집(익산: 한국원불교학회, 1999)
- 이기홍, 「원불교 마음공부의 확장적 논의를 위한 한 개념들」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72집(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 대사전』, 원불교: won.or.kr
- 〈원불교 상담연구회 10년,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①〉, 《한울안신문》, 946호, 2015년 6월 3일자.
- 〈원불교 상담연구회 10년,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②〉, 《한울안신문》, 947호, 2015년 6월 18일자.
- 원불교정화사, 『원불교전서』, 익산: 원불교출판사, 2002.
- 윤호균, 「정신분석, 인간중심의 상담 및 불교의 비교 I : 인간 및 심리적 문제에 관한 견해」 『한국심리학회지』 제3권 제1호(서울: 한국심리학회, 1982)
- 윤호균, 「정신분석, 인간중심의 상담 및 불교의 비교 II : 심리적 문제의 해결」 『한국심리학회지』 제3권 제1호(서울: 한국심리학회, 1982)
- 임전옥, 「상담자로서의 소태산 대중사」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69집(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16)
- 장진영, 「마음병의 세 가지 유형 - 무지, 욕심, 습관 -」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64집(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15)
- 주산종사추모사업회편, 『마음은 스승님께 몸은 세상에』, 익산: 원불교출판사, 2007.
- 주은선·이성미, 「인간중심 상담과 여성장애인 동료상담의 적용가능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7호(대전: 한국콘텐츠학회, 2019)
- 한내창, 「원불교 ‘마음공부’ 정의의 한 시도」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29집(익산: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05)
- 한정석, 『원불교 정전해의』, 서울: 동아시아, 1999.
- 브라이언 손, *Carl Rogers. Sage Publications: London*, 박외숙 외 역, 『인간중심치료의

창시자 칼 로저스』, 서울: 학지사, 2007.

데이브 먼스·브라이언 손, *Person-Centred Counselling In Action*, 주은선 역, 『인간중심 상담의 임상적 적용』, 서울: 학지사, 2012.

칼 로저스, *A Way of Being*, 오제은 역, 『사람-중심상담』, 서울: 학지사, 2007.

원고접수일: 2019년 11월 14일 심사일: 2019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6일

연구자소개: 김도연

- ① 전공: 상담심리학 / 소속과 직위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수료
- ② 관심영역: 원불교학, 상담, 심리학, 원불교 상담모형, 치료적 관계, 마음공부
- ③ E-mail: potatobook@hanmail.net

연구자소개: 성승연

- ① 전공: 상담심리학 / 소속과 직위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② 관심영역: 동양적 상담모형, 인간중심상담, 치료적 관계
 - ③ 주요논저: 『에너지그램 집단상담이 집착과 탈중심화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학생과 중년성인의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외상 후 성장과 적응의 관계에서 실존적 의미의 매개효과』
 - ④ E-mail: madisonair@naver.com
-

Abstract

A Study on the Person-centered Counseling Principle in Doctrine
fo *Won*-Buddhism

Kim, Doyeon · Sung, Seoungyun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fine a new understanding of *Won*-Buddhist counseling, and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system and method of the counseling. To that end, based on the person-centered counseling principle in the doctrine of *Won*-Buddhism, the study explored a *Won*-Buddhist view of human, cause of psychological problems, and solutions for psychological problems, and attempted to apply the person-centered counseling to the *Won*-Buddhist counseling. Regarding the view of human, person-centered counseling tells that human has a self-actualization tendency, and *Won*-Buddhism regards human nature as Dharmakāya Buddha. Regarding the cause of psychological problems, the person-centered counseling regarded it as inconsistency between self-concept and the organic experience, and *Won*-Buddhism considered that the mind created along the sensory conditions was caused by not being respected. Regarding the solutions for psychological problems, the person-centered counseling suggested the three attitudes of the counselor - truthfulness, unconditional positive respect, and empathic understanding. Meanwhile, *Won*-Buddhism confirmed that the three attitudes are included in Sotaesan's attitude of great love and great compassion. As a way to heal the mind that occurs due to the sensory conditions, attention was paid to the three attitudes of Rogers. The cases of counseling in *The Collected Works of Sotaesan Sermon I · II* written by Jusan also showed three attitudes of person-centered counselors. The goal of the person-centered counseling is to help one become a 'fully-functioning person,' while *Won*-Buddhist counseling based on the *Won*-Buddhist doctrine should aim to help one become a 'person who studies the mind on one's own.' The person who studies his mind by himself should be encouraged to move on to maintain, grow and develop not only himself but also the society so that the world of paradise will be constructed.

Key words: Doctrine of *Won*-Buddhist, person-centered counseling, counseling goal, cases of counseling, attitude of the counselor, *Won*-Buddhist counseling